

 광천도시공사	<h1>G - 브리프</h1>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주관 부서	미래전략실	발간 일자	2025 12. 15.(월)

2026년 경제전망

신 지 인

<목 차>

1. 2025년 경제동향	2
2. 2026년 주요 경제 이슈	3
3. 2026년 세계 경제전망	4
4. 2026년 국내 경제전망	6
5. 공사에서 주목해야 할 현안사항	7

◆ 주요 내용 ◆

- 2025년 경제동향
 - (세계) 완만한 성장세 유지하나 회복력 제한적
 - (국내)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경기 부진 점차 완화
- 2026년 주요 경제이슈
 - 미국발 통상환경 충격 본격화
 - 금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의 재개
 - 건설·부동산 부문의 구조적 둔화
- 2026년 경제전망
 - (세계) 글로벌 교역 둔화 위험 속 '25년과 유사한 성장세
 - (국내) 수출 둔화에도 내수가 성장 견인
- 공사에서 주목해야 할 현안사항
 - 국고채 금리 하락 국면 진입...공사 조달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
 - AI·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첨단 인프라 수요 증가 대비 필요

○ 세계 경제

종합 동향

- ✓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나 회복력은 제한적**
 - 2025년 세계 성장률은 약 3.0~3.2%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의 개선 없는 미약한 확장 흐름임
- ✓ **주요국 중앙은행은 2025년부터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 다만 인하 속도는 완만한 양상**
- ✓ **(선진국) 견조한 내수 흐름에 힘입어 미국 주도의 완만한 성장세**
 - (신흥국) **미국 관세 리스크가 예상보다 제한적**, 국가 간 성장세의 차별화 양상
 - **(미국)** 고용시장 둔화에도 성장 흐름 유지, 완화적 금융여건과 일정 수준의 소비 회복으로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기록
 - **(유럽)** 금리 인하·임금 개선에도 소비 회복 지연 및 제조업 부진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미약
 - cf. 특히 독일은 수출·제조업 부진 및 낮은 소비가 겹치며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더딤
 - **(일본)** 임금 상승·소득환경 개선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완만한 성장세
 -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중심의 성장세 둔화 지속

○ 국내 경제

종합 동향

- ✓ **수출 회복과 민간소비 개선에 따른 경기 부진 점차 완화**
- ✓ **다만, 건설경기 침체와 소비 여건의 구조적 제약으로 회복 강도 제한적**
- ✓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는 긍정적이나, 대외 불확실성(미국 관세, 중국 내수 둔화)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

세부 동향

- (민간소비) 금리·정책 효과로 회복세 확대되나 소득구조 제약으로 완만한 흐름
 - (설비투자)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 비반도체 분야는 제약
 - (건설투자) 누적 수주 부진 → 기성 감소로 전이 → 역성장 지속
 - (수출) 반도체 호조로 양호, 다만 통상환경 악화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
 - (물가) 국제유가 하락·환율 안정으로 2% 수준에서 안정(2025. 9월)
- * 2025. 12월 시점,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물가 상승률 2% 중반대 기록

2

2026년 주요 경제이슈

○ 국내외 경제의 주요 쟁점

① 미국발 통상환경 충격 본격화

-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2026년부터 수출·교역에 본격 적용
- ▶ 세계 교역 증가율이 2025년 대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수출 리스크 축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관세 외 다양한 통상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무역제약 요인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비책 마련 필요

②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의 재개

- ▶ 미국은 고용시장의 둔화 및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에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며 원화 강세 가능성이 제기됨
- ▶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므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통상·환율 변동성 등 대외 리스크가 통화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③ 건설·부동산 부문의 구조적 둔화

- ▶ 건설투자는 2025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2026년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제한적 반등이 예상되나 ‘2015년 수준의 낮은 레벨’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부진 흐름이 지속될 전망
- ▶ 부동산시장의 양극화와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한 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수도권은 수요 과밀 속에서 입주물량 감소가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는 반면, 지방은 구조적 수요 축소로 미분양 누적이 심화되며 지역 간 주택시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3

2026년 세계 경제전망

○ 세계 경제

-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

GDP (전년 대비, %)		2025	2026 전망		
			최신 전망	기존 전망	대비(%p)
OECD	세 계	3.2	2.9	2.9	-
	미국	2.0	1.7	1.5	0.2
	유로존	1.3	1.2	1.0	0.2
	일본	1.3	0.9	0.5	0.4
	중국	5.0	4.4	4.4	-
IMF	세 계	3.2	3.1	3.1	-
	미국	2.0	2.1	2.0	0.1
	유로존	1.2	1.1	1.2	△0.1
	일본	1.1	0.6	0.5	0.1
	중국	4.8	4.2	4.2	-

- 2025 경제성장률은 OECD는 2025.12월, IMF는 2025.10월 발표치 기준
- 2026 최신 및 기존 전망은 OECD는 2025.12월과 2025.9월, IMF는 2025.10월과 2025.7월 기준

종합 전망

- ✓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와 긴축 완화 흐름 속 **'25년과 유사한 완만한 성장세 전망**
 -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둔화**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
 -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어려운 **‘느린 회복 국면’** 전망
 - 美 정책의 집행 강도와 시점에 따라 교역·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 ✓ (선진국) 미국의 상대적 성장 우위 지속, 주요국 간 회복 속도 차별화
 - 미국은 견조한 민간수요를 배경으로 완만한 성장세 유지
 - 유로존·일본은 완충적 성장 흐름 이어가나,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회복은 제한적
- ✓ (신흥국) 미·중 통상 불확실성 속 성장세의 국가별 차별화 지속
 - 인도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지속,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강한 성장세 유지

주요국 전망

미국	<p>▶ 관세정책 효과의 본격화와 기술투자 주도의 성장 구조 고착</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반도체·데이터센터 설비투자가 경기 하방을 강하게 지지 · 관세 인상으로 2026년 하반기 소비 둔화·교역 위축 가능성이 증대 · 금리 인하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지적
유로존	<p>▶ 완만한 회복 속 지정학·통상 환경에 대한 취약성 지속</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및 실질임금 개선에 따른 소비 중심의 점진적 회복 · 미국·중국 수요 둔화가 수출 회복을 제약 <p>cf. (독일) 제조업 부진 완화에도 회복 강도는 미약한 수준</p>
일본	<p>▶ 임금·고용 환경 개선으로 단기 회복, 그러나 구조적 제약 지속</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상승으로 소비 회복 지속 · 설비투자 개선세 확인되나 수출 회복은 제한 · 생산성 정체·인구구조 등 중기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성장 발목
중국	<p>▶ 부동산 부담과 통상 리스크로 제한된 회복국면</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디레버리징¹⁾ 장기화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 미국 관세 확대 가능성은 2026년 수출 회복에 큰 제약으로 작용 · 고정투자 확대 등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나 효과는 제한적

1)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기업·가계·국가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투자를 축소하여 재무구조를 안정화하는 과정

4

2026년 국내 경제전망

○ 국내 경제

-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

GDP (전년 대비, %)	2025	2026 전망		
		최신 전망	기존 전망	대비(%p)
OECD	1.0	2.1	2.2	△0.1
IMF	0.9	1.8	1.8	-
한국은행	1.0	1.8	1.6	0.2

- 2025 경제성장률은 OECD는 2025.12월, IMF는 2025.10월, 한국은행은 2025.11월 발표치 기준
- 2025 최신 및 기존 전망은 OECD는 2025.12월과 2025.9월, IMF는 2025.10월과 2025.7월, 한국은행은 2025.11월과 2025.8월 기준

- 주요 경제지표 전망

구분 (전년 대비, %)	KDI 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25	2026 전망			2025	2026 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0.9	2.1	1.6	1.8	1.0	2.3	1.5	1.9
민간소비	1.3	2.2	1.1	1.6	1.3	1.9	1.5	1.7
설비투자	2.5	2.5	1.4	2.0	1.8	2.0	1.0	1.5
건설투자	△9.1	1.0	3.3	2.2	△7.0	4.2	1.2	2.6
총수출*	4.1	2.7	△0.2	1.3	△0.6	△2.5	0.5	△1.0
총수입*	3.9	3.4	0.5	1.9	△1.8	0.8	1.3	1.1
소비자물가	2.1	2.0	2.0	2.0	2.0	1.8	2.1	1.9

*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수출증가율 및 수입증가율의 수치임

(출처: KDI 한국개발연구원(2025. 11.), 현대경제연구원(2025. 9.))

종합 전망

✓ 수출 둔화에도 내수 회복 힘입어 1%대 후반 성장

- 민간소비 · 투자 · 건설경기 회복 등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미국 관세 부담의 파급 강도, 중국 경기 둔화, AI 경기 지속 여부, 수출 둔화 폭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2026년 국내 경기의 핵심 변수

세부 전망

구분	전망	세부 내용
민간소비	완만한 회복	· 금리 및 물가의 하향 안정, 실질소득·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2025년보다 높은 증가세 예상
설비투자	완만한 증가	·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설비투자 증가세 유지 · 관세·통상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확대를 일부 제약
건설투자	제한적 회복	· 2025년 큰 폭 감소 이후 기조효과 등으로 일부 반등 예상 · 건축수주 부진, PF 부실, 인허가 감소, 미분양 문제 등 구조적 요인으로 회복 강도는 매우 제한적 · SOC 중심의 공공부문이 일부 하방을 완충하나 민간부문의 본격 회복은 어려운 흐름
총수출	증가세 둔화	· 전년 호조의 기저효과와 미국 관세 인상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예상 · 반도체·AI 중심 수요는 견조하나, 전통 제조업과 對중 수출은 수요 부진 영향 지속
총수입	완만한 증가	· 내수·설비투자 회복으로 중간재·자본재 중심의 수입 증가세 확대 · 반도체 장비·기계류 등 투자재 수요가 수입 증가를 견인
소비자물가	안정 기조 지속	· 국제유가 안정·공급망 정상화로 물가 상승 압력 둔화 · 근원물가는 내수 회복 영향으로 일정 부분 상승세 있으나, 전반적 인플레이 위험은 제한적

5

공사에서 주목해야 할 현안사항

1) 국고채 금리 하락 국면 진입...공사 조달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

(단위: %)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고채(3년)	2.5	2.5	2.5	2.4	2.3	2.4

(출처: KIF 한국금융연구원(2025. 12.). 2026년 경제전망.)

-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와 주요국 금리 인하 전환에 따라 **2026년 국고채 금리는 완만한 하락세 전망**
 - 통상환경 불확실성으로 단기 금리 변동성은 확대 가능, 안정적 하락 흐름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회사채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국고채 금리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어, 공사는 **기업 조달금리의 변동 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금리 하락은 조달금리·PF 이자비용 완화에 기여하므로, 공사는 **차입구조 재편·금리 시나리오 검토 필요**

2) AI·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첨단 인프라 수요 증가 대비 필요

- 반도체·AI·데이터센터 중심 설비투자 증가로 **첨단 업무·R&D 수요 확대 예상**
 - 수도권 남부권역은 교통 접근성과 산업 인프라 강점으로 **첨단기업 입지 선호 증가 가능성**
 - 다만, 첨단업종 유치는 일반 산업시설과 달리 전력용량 확보, 데이터 전송구조, 지하매설 공간, 보안·출입 통제 인프라 등 개발 초기부터 반영해야 할 요건이 많아, **기존 신도시 대비 개발계획 단계에서의 기술 사양 검토가 필수**
- ⇒ 향후 개발사업에서 첨단 산업 유치에 대응하여 전력·통신 등 **기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데이터센터·R&D 등 **첨단시설에 적합한 용지·설계를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함

■ 참고문헌

[간행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2026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25. No.18.
한국금융연구원. (2025). 2026년 경제전망. 경제전망시리즈 2025-02.
한국은행. (2025). 경제전망보고서(2025년 8월).
한국은행. (2025). 경제전망보고서(2025년 11월).
현대경제연구원. (2025). 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경제주평 25-17호.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5). KDI 경제전망, 2025 하반기. 경제전망 제42권 제4호.
KIET 산업연구원. (2025). 2026년 경제·산업 전망. KIET 경제·산업 전망 2025-02(1).

[인터넷 자료]

기획재정부. (2025. 10. 14.). 국제통화기금(IMF),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Retrieved from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5532&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5. 12. 2.).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발표. Retrieved from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6020&menuNo=4010100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www.moef.go.kr

‘G-브리프’의 내용은
과천도시공사 미래전략단의
자체 연구 결과입니다.